

농두부

2022 | 겨울 | 50호

녹두칼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기획특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념제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유족인터뷰
손주갑
참여자 손여옥의 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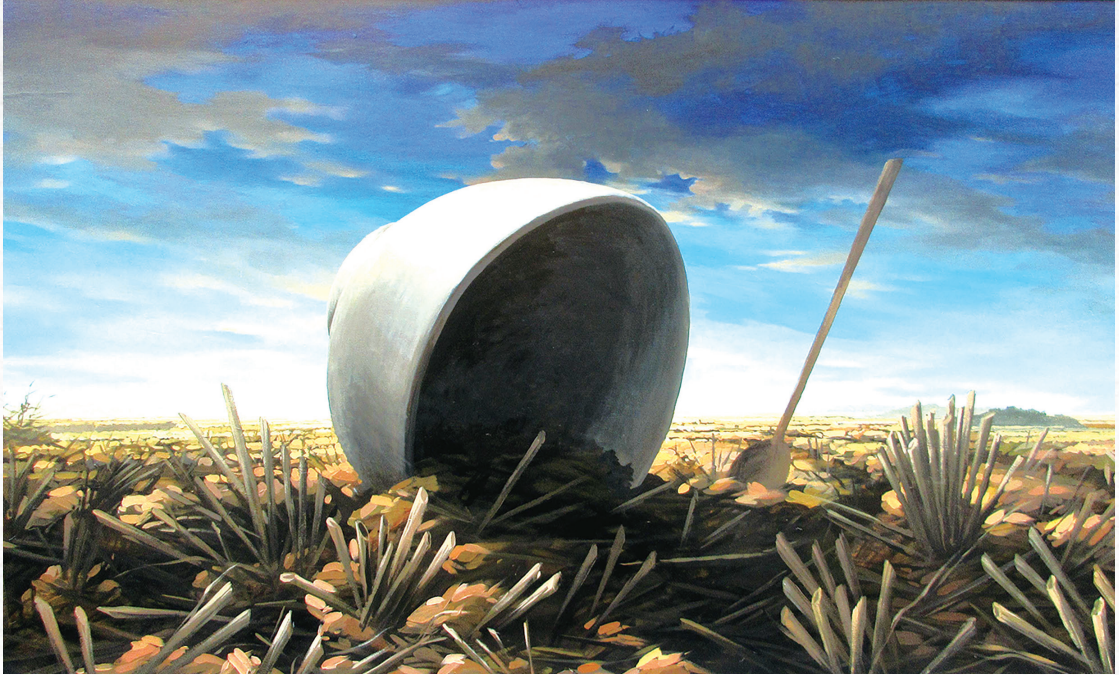
지역대담
박석면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울림 1894



이기홍, 판넬 위에 아크릴, 200cm×100cm, 2021년

작품설명

땀과 찢린 벼 포기가 앙상한 빈들, 시린 논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과 손가락 하나. 이기홍의 '울림1894'는 밥이 곧 하늘이고, 밥을 담은 그릇과 밥을 사람 입으로 옮기는 손가락이 곧 생명의 도구요 하늘의 용기(用器)임을 웅변하고 있다. 징계명개 너른 들녘에 깃든 갑오년의 이야기, 동학농민군의 피맺힌 역사를 텅 빈 들판 위 뒤집힌 그릇과 대지에 가꾸로 꽃힌 손가락 하나로 형상화한 예술적 울림이 도저(到底)하다. 불현 듯, 가슴속 차가운 피가 웅솟음치고, 시린 대지 위에 놓인 빈 밥그릇에 고봉밥이 차오르면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아, 생명이여!

작가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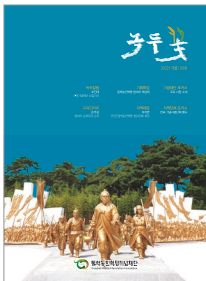
이기홍은 1983년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전주현대미술관 개인전(2021)을 비롯하여 중국상해초대전(2015), 제주4.3미술제(2020), 진달래꽃 피고 지고(도립미술관, 2020), (고)김윤수선생 추모전(인사아트, 2020), 문화공간향교길 개관초대전(2021), 아시아 그리고 쌀전(전북예술회관, 2022), 낫선 그림자전(민갤러리, 2022), 국도 1호선전(목포, 2022) 등 다수의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목차

- 04 **녹두칼럼**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06 **기획특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념제
- 10 **포토포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문화제
- 14 **뉴스초점**
완판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
JTV 전북의 발견 “동학농민혁명”
- 20 **기념재단 포커스**
기념재단 5기 2차 이사회
기념재단 5기 1차 자문위원회
참여자, 김응문 일가(一家) 유골 특별위원회 발족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위원회 발족
- 22 **참여자 유족인터뷰**
손주갑 / 참여자 손여옥의 손자
- 30 **인권과 평화**
박준호 / 전북 정읍동초등학교 4학년



- 32 **지역대담**
박석면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40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단체 행사
- 45 **교육·체험, 방문단체**
녹두꽃, 다시 피다
- 52 **보도기사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표지 설명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정읍시 동학로 황토현전적지에 건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조형물 기준(전봉준 장군상)은 찬알인사의 작품이라는 논란으로 2021년 9월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 조각가 임영선(가천대 교수)의 '불멸, 바람길'이라는 작품명을 가진 군상(群像)이 제막(2022. 6. 25)되었다.

녹두꽃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무릇,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몇 해 전 드라마 '녹두꽃'이 생각한다. 역사화였지만 사회변혁과 관련해서 당대적 물음을 가졌던 사건 이기에 슬그머니 잊혀짐이 의아했던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김남주 시인의 시 '노래'에 화가 김경주가 곡을 붙인 '죽창가'라는 엔딩 음악이 회자되기도 하여 '전봉준'과 대한민국의 주체적 근대에 대해서 잠시 숙고하게 했던 기억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뤘지만 한시도 주변 정세에서 한가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나라 대한민국. 작금의 시대상황은 1894년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골몰했었다. 한편 스스로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동학농민들의 항쟁과 근대이행의 주체형성 운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원천으로 면면히 흘러왔음을 자각케 하였다. 3·1운동과 4·19혁명, 5·18 민중항쟁과 6·10항쟁의 봉우리에 동학농민혁명의 그림자를 새삼 실감하였다.

역사는 문화화할 때 전승된다. 국가는 지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기념일 제정은 국가가 취해야 할 역사의 문화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2019년에 이르러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12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국가의 '제도'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민과 함께 당대의 기억으로 소환하고 기념하려는 국가의 문화적 의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 국민이 사라진 국가의 기념일은 형해화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계승해야 할 정신적 가치는 해체되고 기념의 형식만 남을지도 모른다. 역사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옛적의 어쨌다더라 라는 설화가 되거나 달력 속의 무슨 무슨 날짜로만 명명될 것이다. '나'가 빠진 기념일은 '남'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일로 감각하도록 연결하는 공감장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은 충분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1980년대, 동학농민혁명은 내게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로 왔고, 2015년에는 이광재의 소설 ‘나라 없는 나라’로 몽클하게 왔다. 국가적 의장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국민적 참여는 ‘나’의 기념일로 소환될 때 현재적 사건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슬그머니 잊혀질지도 모를 역사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현재화하는 것. 그것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풍부하게 지금 이곳의 사건으로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일은 그 사건 속에서 삶과 죽음을 겪은 그때 그 사람들의 실존을 공감하게 하는 일이다. 고통과 슬픔, 두려움과 기쁨, 환희와 승고를 느끼게 하는 일이다. 공통의 시간을 호흡하고 있는 모두에게 실감하게 하는 일이 기념사업이다. 국가적 기념일이 ‘나’의 기념일이 되게하고 ‘공동체’의 기념일이 되게 하는 것. 이러할 때 기념사업은 공동체의 상징 자산으로 역사적 사건을 당대화 하게 된다.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하여 근현대의 무릇 항쟁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묻는 역사였으며 무릇 항쟁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은 ‘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갖게 하는 일이다. ‘그들’만의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기억 공간으로 역사를 호명하는 일, 기념사업이 지닌 숙명이자 한사코 풀어나가야 할 과업일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11월 광주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 부마항쟁재단, 노근리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등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였고, 동학농민혁명재단도 함께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기념사업을 하는 ‘서로’는 서로가 연대해야 하는 것 또한 풀어나가야 할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조진태 | 시인,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1984년 『민중시』(시무크지)로 등단하여 한국작가회의의 이사와 광주·전남 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다시 새벽길』, 『희망은 왔다』 등이 있다.



▣ 국민의례



▣ 인사 말씀 |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 추념사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추념사 | 이학수 정읍시장



▣ 편지 낭독 | 유상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광화의 증손자



▣ 편지 낭독 | 한승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의 증손자



▣ 한화



▣ 추모공연

저녁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너편에 위치한 <황토현 어울림센터>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워크숍과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김춘성(전 부산예술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동학」,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2022년 5월 11일 개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캠핑장, 연수동, 기억의 들판, 울림의 기둥, 전시관 등의 시설을 관람하였다. 이어서 지난 6월 25일 제막한 '불멸, 바람길'이라는 작품명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는 퍼포먼스(최태만 국민대 교수·임영선 가천대 교수 공동 연출)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 김성향 | 참여자 김응문의 증손자



▣ 참여자 김응문 일가 유골 관련 학술 세미나



▣ 특별강연 | 김춘성 (전 부산예술대 교수)



▣ 특별강연 |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퍼포먼스



▣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기념촬영_불멸, 바람길 동상 앞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문화제
큰 나라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



2022년 10월 1일부터 2일, 이틀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 정읍황토현전적, 사적 제295호)에서 '큰 나라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문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개최된 문화제는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사장 이창선)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공연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는 전북 청년예술단체, 녹두꽃시민합창단, 전주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하였다. 또한, 누구나 쉽게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사와 함께하는 기념공원 산책 프로그램과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마당,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 길놀이



▣ 민족 대합창_전주소년소녀합창단



▣ 민족 대합창_녹두꽃시민합창단



▣ 공연_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 공연 백성의 춤



▣ 공연 아리랑, 모두가 부르는 노래



▣ 공연 백성의 춤





▣ 체험 프로그램 참여



▣ 체험부스

▣ 관람객



완판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 사진제공 | 창작판소리연구원

2022년 10월 28일 전봉준 유적, 사적 293호(전북 정읍시 이평면)에서 완판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공개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현 창작판소리연구원 위원장(전 문화부 차관),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읍시 관계자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임원진,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읍시 주최, 창작판소리연구원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임진택 명창이 대본을 쓰고, 직접 소리도 하였다. 창작판소리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온 임진택 명창은 <5월 광주 윤상원가>, <백범 김구>, <안중근가>, <전태일가>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 인물들을 소리예술로 승화시켜왔다.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은 1부: 탐학을 금(禁)해주시오(교조신원, 고부봉기), 2부: 고통 받는 민중은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무장기포, 백산포고, 황토현 전승, 전주성 입성), 3부: 감오세 가보세(집강소 설치, 남·북접 합작, 우금치 전투) 등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이번 공연은 제1부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장, 전라



▣ 임진택 명창(광대, 창작판소리연구원 예술감독)



▣ 축사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왕기석 명창 | 공개 시연회(정읍), (2022.10.28.)



▣ 송재영 명창 | 공개 시연회(정읍), (2022.10.28.)



▣ 전주공연(2022.11.10.)



▣ 서울공연(2022.11.19.)

북도 무형문화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제2부 송재영(전라북도 무형문화제), 제3부 임진택 명창이 각각 맡아 무대를 소화하였다. 2022년 10월 28일 시연회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11월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전북 전주), 11월 19일 돈화문국악당(서울특별시), 12월 10일 연자아트홀(전북 정읍시) 등에서 각각 공연되었다.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 : 혁명의 기념 -

2022 THE 1st WORLD REVOLUTIONARY CITY JOINT CONFERENCE

Remembrance and Solidarity in Modern Revolutionary Cities : Commemorating Revolutions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2022

2022 THE 1st WORLD REVOLUTIONARY CITY JOINT CONFERENCE

Remembrance and Solidarity in Modern Revolutionary Cities : Commemorating Revolutions

일짜 : 2022년 12월 4일(일) - 6일(화)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정읍시 일원

근대혁명도시들의 기억과 연대 : 혁명의 기념

12월 5일 (월) 09:30-10:00 정읍 황도현 민속 문화 및 세계혁명도시 연대 연인 [간행물 발간과 동학농민혁명 기념] [1부 발표 및 논평] [2부 발표 및 논평] [3부 발표 및 논평]	12월 5일 (월) 10:00-17:20 국제컨퍼런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1부 발표 및 논평] [2부 발표 및 논평] [3부 발표 및 논평]
12월 6일 (화) 09:30-14:00 [1부 발표 및 논평] [2부 발표 및 논평] [3부 발표 및 논평]	

2022년 12월 4일(일)부터 6일(화)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정읍시 일원에서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열렸다. 정읍시 주최·주관, 국무총리실·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혁명”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과 함께 각국 근대혁명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도시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시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일본 삿포로,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뮐하우젠, 중국 연안 등 여섯 개의 나라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행사는 첫째 날 해외 주요 내빈과 환영만찬, 둘째 날 정읍황도현전적 현화 및 세계혁명도시 연대선언,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의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되었고, 셋째 날에는 정읍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행사 둘째 날인 12월 5일(월)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개회사,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축사, 고경운



▣ 세계혁명도시 연대선언 | 이학수 정읍시장



▣ 인사말 |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체 게바라의 친조카)



▣ 기초강연 | 박홍규 농민화가



▣ 논평

정읍시의장의 환영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박홍규 농민화가의 「나는 왜 동학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기초강연으로 시작된 국제학술대회 제1부는 조광환 동학역사문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원도연 (원광대 교수)의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의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작가·체 게바라 연구가)의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의 체 게바라 기념사업」, 요코시마 고지(일본 삿포로대 교수)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저항정신과 마즈리(祭)라는 주제발표와 김영진(전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과 유지아(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의 논평이 진행되었다. 제2부는 한담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브랜든 킬링(더블린 시립도서관 부관장의 코로나 진단으로 권의석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가 대리발표)의 「더블린의 아일랜드 혁명 기념행사」, 크리스티나 페로(뮐하우젠 농민전쟁박물관 수석연구원·고고학자)의 「독일농민전쟁 500주년과 뮐하우젠의 기념사업」, 리우신위예(刘欣玥) (중국 상해사범대 인문학원 교수)의 「대합장의 도시, 연안(온라인 발표)」이라는 주제발표와 박해남(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교수), 문병학(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의 논평이 진행되었다.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기념행사



□ 사진제공: 고창군

2022년 11월 14일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서 고창 무장기포지(茂長起包地)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기념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과 고창군이 공동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 경과 및 보존방안 보고,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유공자 표창, 개회사, 축사, 사적 탐방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행사에는 심덕섭(고창군수), 노형수(고창군 부군수), 임정호(고창군의회 의장), 윤준병(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고창군 공음면에 있는 무장기포지는 1894년 3월 20일(양력) 동학농민군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 무장포고문을 공포하고 봉기한 역사적인 장소로 2022년 5월 2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JTV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동학농민혁명”



2022년 12월 2일 JTV전주방송 프로그램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가 방영되었다.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설치된 기념시설물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는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출연하였다. 좌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 그동안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향후 견지해나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기념사업 등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2차 이사회



2022년 12월 8일 오후 2시 5기 제2차 이사회가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정해근(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사무총장), 심형기(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정선원(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위 의환(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천진기(前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 원장), 박흥규 (기념재단 사무처장) 그리고 감사 강영모(다산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1차 자문위원회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 5기 제1차 자문위원회가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재단 현황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활성화 방안, 대국민 홍보의 다변화 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 위원장(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손주갑(동학농민유족회 대의원), 김용달(前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김봉승(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이기전(前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경민(백제예술대 뮤지컬과 학과장), 박흥규(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참여자, 김응문 일가(一家) 유골 특별위원회 발족



▣ 회의 개최 (2022.7.27.)

2022년 7월 2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일가(一家) 유골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894년 전라도 무안 등지에서 활동하다 처형된 참여자 김응문 일가 유골이 발굴됨에 따라 그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신영우(위원장, 충북대 명예교수), 김성황(참여자 김응문의 증손), 김병기(참여자 김효문의 고손), 김영재(참여자 김자문 손자), 김성운(참여자 김여정의 손자), 정남기(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김봉곤(원광대 교수), 김재기(전남대 교수), 왕현종(연세대 교수), 박석면(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오선희(무안군 문화체육과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위원회 발족



▣ 회의 개최 (2022.9.16.)

2022년 9월 1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사업의 자문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세 번의 회의를 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목적사업의 하나인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설립 및 연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신영우(위원장, 충북대 명예교수), 김소영(공주대 교수), 김양식(청주대 교수), 김용달(前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민희수(홍익대 교수),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유바다(고려대 교수), 이삼성(한림대 명예교수), 임형진(경희대 교수), 조재곤(서강대 교수), 천진기(前국립민속박물관 관장), 홍성덕(전주대 부총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손여옥의 손자 손주갑

일 시 : 2022. 10. 12(화) 13:00

장 소 :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실

이번 『녹두꽃』 소식지 유족인터뷰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손여옥(孫如玉, 1860~1894) 님의 손자(孫子) 손주갑(孫周甲) 선생님을 모셨다. 참여자 손여옥 님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손화중 장군과 함께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가 나주에서 체포되어 돌아가셨다. 손주갑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1994년 3월 창립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살림살이를 맡아 왔으며,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활동하는 유족회원들과 기념사업단체들을 한데 모아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한 후 유족회와 재단의 총무를 맡아 헌신하였다. 또한, 서울 서린동 서울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앞 인도에 건립(2018. 4. 24.)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을 위해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동상 건립사업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문위원,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 선생님 반갑습니다. 녹두꽃 독자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전국에 계시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여러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애쓰시는 전국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여러분, 녹두꽃 독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사발통문 서명자의 한 분인 참여자 손 여옥 님의 손자 손주갑입니다. 저는 한국전쟁 한 해 전인 1949년 전북 순창 강천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6·25 난리를 치른 뒤 제가

여섯 살 때쯤 정읍으로 이주했습니다. 정읍에서 학교를 다녔고 1974년도에 상경(上京)하여 현재까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직전 해인 1993년 말에 유족 몇 분들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유족회 활동에 참여해왔으니까,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힘닿는 대로 참여해 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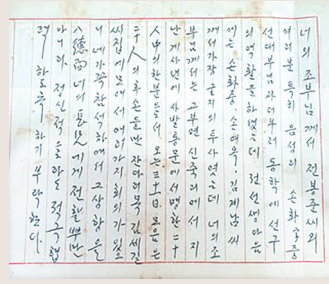
문 : 네, 제가 1992년 6월 전북 전주시에서 창립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간사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실무를 맡아 활동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이화 선생님, 우윤 선생님 등 여러분들이 유족회를 창립하기 위해 애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1993년 말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 19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활동에 헌신해오셨는데, 선생님은 고향이 순창군으로, 특이하게 강천사라는 절에서 태어나셨지요? 이후 선생님 아버님의 고향이시고,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 때 활동하셨던 정읍으로 돌아와 생활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네, 손 여자 옥자 저의 조부님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부님은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핵심 지도자였던 손화중 장군의 족질(조카뻘)로 1893년 11월 사발통문 서명자 20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부께서는 갑오년에 전봉준·손화중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고, 동학농민군이 나주전투에서 패배한 후 체포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風飛雹散) 나서 모두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아버님이 7살 때 전남 장성 백양사로 몸을 피하셨다가 그곳에서 스님이 되신 후 몇 곳을 거쳐 전북 강천사로 들어가셔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주지스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 : 선생님께서는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요?

답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969년 1월 27일로 기억됩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 집안 어른한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저의 손 여자 옥자 할아버지께서 사발통문에 서명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그 후손들의 모임이 있으니 그 모임에 꼭 참석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어른의 말씀대로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1968년 늦은 가을에 사발통문 필사본이 전북 정읍 고부면 신중리에서 발견되었고, 해가 1969년으로 바뀐 후 사발통문에 서명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갖게 된 첫 모임이었습니다. 김 응자 칠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의 집인 전북 정읍 연지리(잔다리목)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 모임에서 후손들이 힘을 모아 <동학혁명모의탑>을 세우자는 의견이 개진되

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할아버지 함자도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



□ 집안 어른(손성탁)으로부터 받은 편지

니께서 너희 할아버지가 갑오년에 대장을 하셨다고만 언뜻 말씀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피해의식 때문이었던지 조부님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지금이야 동학농민혁명을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라고 말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동학란’ 또는 ‘반란’ 등으로 매도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내력을 얘기해주면 어린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문 : 어머니께서 조부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도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잘 알고 계셨음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조부님 관련 일을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의 아버님 생각을 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행스럽게 뒤늦게나마 사발통문이 발견되면서 선생님 조부님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혹은 여타의 경로를 통해 조부님에 대해 알게 된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저는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조부님의 활동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최현식 선생님께서 쓰신 책(『갑오동학혁명사』)에서 손 여자 옥자 할아버지 함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글 중에 유족으로 손자인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지영의 『동학사』나 기타 여러 사료들에서도 조부님의 활동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 조부님께서 1893년 11월 동학농민혁명도화선이 된 고부농민봉기의 발단이었던 이른바 ‘사발통문 거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조부님은 갑오년에 손화중 포(包)에 속한 정음현의 두령(頭領)으로, 정음현의 농민군 천여 명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 참가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 : 선생님의 집안은 전봉준 장군님, 손화중 장군님의 집안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제가 어렸을 때 정읍으로 이주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가 잘 모르는 어른 두 분의 사진을 집안 벽에 걸어놓으셨어요. 나중에 물어서 알았는데 두 분 중 한 분은 불제자였던 제 아버지를 지도하셨던 큰스님이셨고, 또 한 분은 손화중 장군이셨어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손화중 장군 사진은 그분의 후손에게 돌려주자고 해서 손화중 장군의 손자 되시는 손홍렬 선생님께 보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안이 손화중 장군 집안과 각별했던 것은 조부님과 손화중 장군님이 인접한 마을에 살았고, 집안끼리도 관계가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부님은 정읍 삼산리에 사셨고, 손화중 장군은 바로 뒷마을인 음성리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할머니가 두 분이 계셨는데, 큰 할머니 본관이 고흥 유씨인데 손화중 장군의 부인도 고흥 유씨입니다. 그리고 둘째 할머니는 본관이 천안으로 천안 전씨입니다. 가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할아버지께서는 전봉준 장군의 맏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님께서 제 아버지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일전에 손화중 장군님의 손자이신 손홍렬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기록에 보니까 저희 손 여자 옥자 조부님께서 손화중 장군의 족질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여쭙봤더니 손홍렬 선생님께서 “족보상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예전에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으로 양자를 들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손화중 장군님과 족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 : 네, 그러니까 손 여자 옥자 참여자분과 전봉준, 손화중 두 분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 나는 것처럼 조부님은 동학농민혁명 초기단계부터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셔서 많은 전투에도 참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하셨다가 끝내는 전투에서 패배한 후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부님의 시신은 수습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조부님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도 없고, 제삿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주전투인가? 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 붙잡혀서 나주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바탕으로 어림짐작으로 제삿날을 잡아서 제를 모셔왔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문 : 네, 조부님의 시신조차 거둘 수 없는 감감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께서 당시의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선생님의 아버님을 비롯한 후손들이 화를 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에서 피난생활을 하시고, 순창 강천사 등을 거쳐 나중에 정읍으로 이주하여 사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1894년 겨울, 어수선하던 때 저희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데리고 전라남도 백양사로 피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잡히면 친가(親家)는 물론이고 외가(外家)까지 씨를 말리려고 했던 때라서 서둘러 산중으로 피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신하

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어린 나이에 숨어 지내시다가 불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려가 되신 후 아버지께서는 장성 백양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정읍 내장사 등에서 기거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정읍 내장산 넘어 회문산자락을 타고 순창으로 들어가신 후 6·25 한국전쟁 직전까지 강천사의 주지스님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연고로 제가 강천사에서 태어난 것이구요. 저희 아버님은 대처승으로 승려지만 결혼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강천사에 머무는 것이 여의치 못해 정읍으로 이주를 했고, 제가 6살 때였는데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환갑 때 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읍으로 이주하신 때 연세가 육십 육 칠세 쯤 되었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일을 하시기 여의치 않고, 게다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가족들 생계유지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산지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손화중 장군님의 아드님이신 손응수 옹께서 산지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화중 장군님 집안 어른들의 도움으로 아버지께서 정읍에 정착할 수 있었고, 저도 정읍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 :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아버지를 둔 선생님의 아버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팔랐을까 하는 것은 선뜻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여자 후손들의 삶은 말 그대로 숨죽이며 살아야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역사인식이 대중적으로 전환되면서 너무나 늦었지만 동학농민혁명 110년 만인 2004년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까지 제정되어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4년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되었는데, 그 창립을 준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께서는 유족회 일이나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관련 일이라면 늘 마다하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임해 오셨다는 것을 저는 늘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다함없는 애정을 쏟으신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도 참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가 뭣이라 하든 말든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인터뷰에서는 선생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에 몸담아오면서 기억난 일들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형식에 구애 없이 편안하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그러니까 제가 1969년도에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고부면 신중리 주산 마을 앞에 ‘동학혁명모의탑’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된 모임에 참여한 때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사는 게 어렵고 하니까 작은 탑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십시일반으로 쌀도 내고 돈도 내고 그렇게 힘을 모아야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돈으로 100원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탑을 만드는 현장에 돈이 없으니까 막걸리 몇 병이라도 사들고 그곳에 몇 번인

가 가서 예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이내 군대를 갔어요. 74년도에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회사도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2월 정읍시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주최로 ‘고부봉기 역사맞이곳’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그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행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유족회가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인가? 정읍시청으로 전화해서 유족 관계자 등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니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줘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족회 창립을 준비하시던 분들과 만나서 유족회 창립 준비를 함께 하였고, 마침내 1994년 3월 3일에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족회 활동에 나름대로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였고, 2017년에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할 때 전봉준동상건립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으신 전성준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동상건립추진위원회 일을 힘담는 대로 돕게 되었습니다. 한 때는 할아버지 손자노릇하기 힘들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때가 되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는 믿음으로 유족회 초대 김영중 회장님부터 정남기 회장님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유족회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되던 1994년에는 유족회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문 : 맞습니다. 방송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고, 신문들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기획특집기사나 연재기사를 많이 게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는 무엇보다도 역사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진보적인 역사학계 소장학자들의 노력과 전국에서 창립되어 활동한 기념사업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힘을 보태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국가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등등 이런 움직임들을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살펴봤을 때 100주년 전후 고양된 사회적 분위기를 옹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1994년 100주년 기념대회가 2월 26~27일 ‘고부봉기 역사맞이곳’(전북 정읍시), 4월 29~30일 ‘100



주년 기념대회(전북 전주시), 10월 29~30일 '100주년 우금티추모예술제'(충남 공주시) 등 아주 성공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궁 내 사무실을 받아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함께 살림을 했었는데, 이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그때는 어디서 사업예산이나 사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때 문부장님도 재단 사무처장을 맡아서 고생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가난했어요.(웃음) 그래서 예술계 계시는 분들의 그림이나 서화작품을 받아서 전시회를 열어 기금을 만들곤 했었지요. 기억해보면 덕성여대 어디 빌딩 지하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영복 교수님 글씨도 몇 점 받아서 전시했던 기억이 나요. 유족회가 창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념재단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여러모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은 유족으로서의 참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란군으로 내몰렸던 저희 선조들을 정부에서 법률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이니까요. 특별법 제정 당시를 생각하면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승헌 변호사님, 이이화 역사학자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 정읍시가 지역구였던 윤철상 국회의원님과 그분의 보좌관이었던 이요섭님과 고영규님이 생각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 : 네, 선생님을 말씀을 들으니 숙연해집니다. 선생님께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말씀을 잘 안하시지만 늘 유족회 활동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마다 실무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경북궁 내 같은 사무실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함께 업무를 보았는데, 그때 제가 기념재단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생님께서 유족회는 물론이고 기념재단의 총무를 일을 맡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앞에 '녹두장군 전봉준동상 건립사업 때도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서울시에 법인을 설립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실무적인 많은 일들은 묵묵히 감당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념재단에서 근무하는 제게 저를 뒤돌아보게 하는 귀감이었습니다.

답 : 무슨 말씀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인 저야 당연한 일이지요. 도리어 시민운동가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백주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몸담아온 문부장님 같은 사람이 고마울 따름이지요. 지금이야 특별법도, 기념일도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대중적으로 바로잡혔지만, 100주년 때까지만 해도 반란사건이라고 말하던 때였잖아요?

문 : 네, 격세지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면서 10년 뒤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실무자로서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여 빠뜨린 얘기가 있거나 기념재단 혹은 전국의 유족 분들이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네,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반란으로 치부되던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로 재인식되고, 일제의 침략에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적인 거사로 인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우리 유족들은 선조들이 국가 유공자로 서훈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되신 참여자분들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여자분들의 서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후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반문하곤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점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어떤 방식으로든 방안을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어났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동학농민혁명을 반봉건, 반외세로만 초점을 맞추는 감이 있어 아쉽습니다. 물질중심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남겨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하늘이다”는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저는 “나눔”과 “배려” 그리고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공감하게 할 수 있는지가 결국 동학농민혁명의 현재화, 미래화로 갈 수 있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의 승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단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별 다르게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러 서울까지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동학농민군

박준호 전북 정읍동초등학교 4학년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2022.10.15.)
'불멸, 바람길' 동상 앞에서_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지호, 박수호, 이건울, 박준호

화창한 가을날 나는 엄마랑 동생들이랑 함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다녀왔다. 엄마가 정읍에 큰 공원이 생겼다고 다녀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공원은 엄청 넓고 볼게 많아서 기분이 참 좋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도착하자 해설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공원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셔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동생들과 함께 공원 산책길을 따라 걷다보니 하얀 팝콘같이 생긴 꽃이 많이 피어 있어 무슨 꽃인지 선생님께 여쭙보니 "메밀꽃"이라고 알려주셨다. 옛날에 농민들이 비가 안 와도 잘 자라는 메밀을 심어 메밀국수랑 메밀묵도 만들어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고 한다. 나는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먹을 게 없었던 농민들은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성들이 더욱더 배고팠던 이유는 조병갑이라는 나쁜 군수가 수확한 쌀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와집이 보여 안으로 들어가 보니 큰 동상이 있었다. '불멸, 바람길'이라는 동상이 있었는데 보통 우뚝 서있는 동상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동상 맨 앞에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진지한 모습이었고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대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있었다. 또 소를 몰고 가는 아저씨, 닭을 지푸라기 가방에 넣고 가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여러 모습의 동상을 보면서 일본군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해설사 선생님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에서(엄마랑 동생들과 함께)

맞서 싸운 사람은 군인이 아닌 농민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참여한 혁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상이 있던 곳에서 나와 우리는 울림을 기둥을 지나 동학농민혁명박물관과 추모관을 둘러보았다. 추모관에는 이름이 새겨진 검은색의 돌을 아주 많았는데 모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패라고 한다. 나는 동생들과 함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묵념을 했다. 오늘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알게 좋았고 넓은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다음에는 친구들과하고도 오고 싶다.



동학농민혁명 상징조형물 ‘죽창결의’ 앞뜰에서 뛰어놀며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 2022. 10. 18(화)

장 소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소식지 『녹두꽃』 지역대담에는 박석면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모셨다. 박석면 회장은 30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무안지역에서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인근의 함평과 나주는 물론이고, 장흥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왔다.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한 해 앞둔 1993년이였다. 그러다가 200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남지방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부상하여 2007년도에 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되었고, 2011년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박석면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문병학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 <지역대담>에는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애쓰시는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박석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석면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박석면입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무안에서 농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한 해 앞둔 1993년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연을 맺고 있습니다. 혁명 100주년 전후 시기 무안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의 함평에서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기념사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고창, 정읍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였습니다. 93년 11월 무안지역 뜻있는 주민 80여 분과 함께 한 답사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숭고한 뜻을 다시 새겨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 2004년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무안에서도 본격적인 기념사업이 시작됩니다. 무안향토사연구소의 마을탐방과 동학 유족 찾기, 2005년 박맹수 교수 초청 동학 강연회, 2007년 유족회 창립, 2008년 무안향토사연구소와 유족회의 '무안 동학농민혁명사' 발간, 2011년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발족되는 등 일련의 무안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줄곧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병학

2022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단체는 35개입니다. 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일찍이 창립되었는데요. 초창기 연혁과 활동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면

2011년 8월 유족회와 뜻있는 무안군민들이 모여 동학의 자료발굴과 기념사업, 그리고 정신계승이라는 3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하 무안군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제폭구민과 척양척왜를 외치다 구천에 외롭게 쓰러져간 혁명 전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내는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무안지역의 동학의 역사를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환으로 목포대학교에 의뢰하여 '무안군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목포대 고석규 전 총장, 배항섭 교수 등 전국의 동학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무안군의 동학 역사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앞으로의 기념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작업을 하였지요. 2015년부터는 목포대학교, 무안고등학교, 해제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꾸려 연구활동을 하며 커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정신선양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고등학교 학생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직접 연극을 만들어 승달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렸는데 함께 공연을 관람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큰 울림으로 남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 공연 | 다시 돌아온 파랑새(2019년)



□ 동학농민혁명 주제 연극(다시 돌아온 파랑새)의 한 장면
좌: 배상옥 장군 역의 박석면 회장

은 일본군 역, 저는 배상옥 장군 역을 하며 직접 연극에 참여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병하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발원하여 전국으로 확대·전개된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뿌리이자 민족주의 운동의 시원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백두산자락인 함경도를 제외하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등 전국 각지에서 적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봉기했다는 사실은 이미 1980년 이후 역사학계 연구에 따라 명확하게 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해당 지역마다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회장님께서서는 전남 무안지역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석면 무안군은 나주시와 인접한 고을입니다. 그로 인해 무안지역만의 독특한 의미가 부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전라감사 김학진과 관민상화의 원칙에 합의하여,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였잖습니까? 그때 남원 운봉지역과 무안 인근 나주지역에는 집강소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성군 그러니까 관군과 민보군 등 보수 세력이 강했던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무안지역의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 때 북상에 합류하지 않고, 상당한 세력이 남아서 남해안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본군과 나주 수성군의 발호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역사적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배상옥 대접주님의 활약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그러면 정음, 태인, 고창 지역의 출신인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뭐 이런 분들이 부각되어 있는데 이른바 서남해안 무안, 함평, 나주, 영광 등지에서 큰 세력을 거느렸던 배상옥 대접주, 남해바닷가 장흥 등지를 석권하였던 이방언 대접주 등의 활약상이 역사의 뒷안길에 버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로잡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특성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

다. 배상옥 대접주는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나주를 향해 진격하였다가 1894년 11월 17일경 나주 외곽 30여 리 지점에 있는 고막포(古幕浦, 당시 무안현 금동면, 현재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와 고막원(현재 나주시 문평면)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나주목사 민종렬은 나주 수성군에게 출동명령을 내려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지요. 공격해오는 관군을 피해 고막교를 건너던 동학농민군들은 때마침 밀려든 조수로 물이 넘치는 바람에 다리 밑으로 빠져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상옥 대접주를 포함한 농민군은 해남 또는 완도로 피신했고, 배상옥 대접주는 이후 밀고로 붙잡혀 현장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배상옥 대접주는 워낙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처형되었으며 전봉준과 같은 1,000냥의 현상금이 걸려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전라도 서남해안의 거괴(巨魁)라는 표현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배상옥 대접주가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애달픈 마음이 담긴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 군대 어테 두고 썩국대 밑에서 잠들었나”라는 노래가 불려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병학

말씀을 들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사적으로는 근·현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이고, 동아시아 혹은 세계 근대혁명사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우랄산맥, 인도와 중국을 가르는 히말라야 산맥에 비견해야 마땅한 거대한 준령(峻嶺)인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 군현의 작은 산봉우리 정도로 축소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浮沈)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쨌거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옥 대접주님은 전라도 서남부 지역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분이신데 그 역할이 역사의 뒤안길에 암장(暗葬) 당해온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연유로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배상옥 대접주님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장님 뜻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상옥 대접주님과 관련하여 어떤 형식 혹은 내용의 선양사업을 기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도 무안 하면 떠오르는 고막포 전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면

저는 배상옥 대접주가 전봉준 장군이나 김개남 장군 못지않게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광, 함평, 무안, 해남, 완도, 진도 등 서남해안을 총괄한 분이 배상옥 대접주였습니다. 배상옥 대접주님이 지금의 완도에서 체포되었는데, 이것 또한 그쪽에 연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피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요. 또 구전에 의하면 배상옥 대접주가 백마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가 30세였다고 해요. 그런 걸 봐서는 아주 큰 세력을 거느린 대단한 장군이었다고 봐요. 이런저런 구전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기록들이 많지 않아 배상옥 대접주에 대한 연구나 기념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배상옥 대접주님에 대한 기념사업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세미나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갯돌’이라는 극단에서 배상옥 대접주님을 주인공으로 창작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무안군기념사업회는 전라남도도와 함께 나주, 무안, 함평 이렇게 광역으로 통합하여 배상옥 대접주님 관련 기념사업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안지역에는 해주 최씨, 나주김씨, 달성배씨 이렇게 세 가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안지역에서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참여자 중 해주최씨 가문과 나주김씨 가문에서는 기념사업을 해왔는데 달성배씨 가문에서는 그렇다할 기념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상옥 대접주님과 관련하여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무안동학농민군의 최대의 격전지였던 고막포 전투와 관련된 기념사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 당시 고막포는 무안군이었는데,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함평군으로 속합니다. 행정구역이 달라지다보니 기념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무안지역에서는 기념사업을 하자고 하면, 고막포는 함평군 관할인데 우리가 왜 그곳에 기념사업을 하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평 사람들은 동학농민군이 많이 희생된 고막포전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낮은 편이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배상옥 대접주님과 고막포 전투를 빼버리면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지난해인 2021년에는 무안군, 나주시, 함평군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한데 모아 고막포전투 기념제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막포전투지에 표지석도 세우고 장차 국가사적으로 등록해나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평군과 나주시와도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일이 더 있습니다. 지난 4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일가의 유골이 무안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묘지를 조성하고, 현창비를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28일과 5월 25일 갑오년 당시 무안에서 접주로 활동했던 김응문 일가의 유골이 몽탄면 차피마을 선산 등지에서 발굴되었지요? 회장님께서 유골을 발굴하는 사업에도 참여하셨고, 그 이후 유골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김응문일가유골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일가(一家)의 유골 발굴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金應文, 1849~1894)은 나주와 무안지역 향반(鄕班) 출신으로, 집안이 어려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

다고 합니다. 김응문 일가는 김응문(金應文)을 비롯하여 김응문의 둘째 아우 김효문(金孝文, 1851~1894)과 막내(넷째) 아우 김자문(金子文, 1868~1894) 그리고 김응문의 큰아들 김여정(金汝正, 1867~1894)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습니다. 1894년 3월 백산대회 때 김응문 일가는 배상옥 대접주 등 무안의 장령급 15명과 함께 참여하였고, 1894년 11월 나주성 공략을 위해 나주, 함평, 해남, 진도 등 전라도 서남해안 지역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치열하게 고막포전투를 치렀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사망으로 흩어졌지요. 김응문 일가 또한 김응문의 장남 김여정의 처가(妻家)가 있는 함평에 숨었다가 체포되었고, 1894년 12월 8일 김응문과 김자문, 김여정이 무안관아에서 참수(斬首)되었고, 나흘 뒤인 12월 12일에 다른 곳에 피신해있던 김효문도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된 후 시신의 전부를 수습하지는 못하였으나 김응문의 집안이 항반으로서 지역에서 덕을 쌓고 살았던 터여서 김응문의 머리를 거두어 월구정 둔덕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고, 막내 동생인 김자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응문 묘 바로 밑에 묻었죠. 둘째 동생인 김효문은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김응문의 장남인 김여정은 무안읍에 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의 증손자 김성황 선생님이 1992년도에 증조모 함평노씨와 증조부 김응문의 묘를 정비하였는데, 옹기 안에 담긴 유골(머리)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으로 2020년 김성황 선생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선조들의 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공동묘역을 조성하여 추모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발의하고, 무안군기념사업회에도 함께 해주길 요청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올해 4월 28일 유체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무안군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전공연구자, 방송 관계자도 함께 유해발굴에 참여토록 하였고 그 일환으로 원광대 김봉곤 연구교수, KBS방송국 기자도 참여하여 유족과 함께 유체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 당시 김응문의 두개골이 기왓장에 덮인 채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었고, 김효문의 두개골은 거의 산화된 상태였으며, 김여정의 유골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인 지난 5월 25일 2차 유체 발굴을 추진한 결과 김자문의 두개골이 산화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문병학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골은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발견되어 1996년 국내로 봉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발견되어 국내로 봉환된 유골은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녹두관을 조성하여 그곳에 모셨습니다. 따라서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모셔온 무명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이후 이번에 발굴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일가의 유골은 신원이 확인된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셈입니다. 구전이나 사료 등으로 신원이 확인된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골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안군기념사업회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김응문 일가 유골에 대해 어떤 후속 기념사업을 계획하시고 있는지요?

박석면 김응문 일가 유골을 발굴하면서 단순히 묘만 조성해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창사업을 제대로 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현장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현장비를 김응문 생가인 차피마을 앞 대로변에 건립하였고 현재는 발굴된 김응문 일가 유골에 대한 제반의 조사 등을 기념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미 있는 추모 및 현창사업 추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저희 기념재단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굴된 김응문 일가 유골에 대한 추모사업 또는 현창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에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발견되어 그 다음해인 1996년 국내로 모셔온 무명동학농민혁명지도자 유골의 경우 3D촬영 후 상반신을 청동으로 복원하여 전주역사박물관과 기념재단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였으나 30~40대 몽골로이드인, 남성이라는 사실 이외에 신원은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굴된 김응문 일가 유골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동학농



▣ 참여자 김응문 일가(一家) 현장비 제막식(2022.5.4.)



▣ 참여자 김응문 일가(一家) 현장비

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실 터인데, 무안군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면

무안지역은 예부터 농민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 대표적인 농민투쟁인 암태도 소작쟁의(1923년), 해방 후 농민조합운동, 농촌 근대화 이후 농민권익실천투쟁, 민주화운동과 연결된 대정부 농민투쟁 등도 저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70년대, 8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농민운동을 하나의 맥으로 조망할 수 기념관을 무안군에 건립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야만이 역사가 현재화가 되고, 후세에 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의 핵심으로 배상옥 대접주님의 활약상과 이번에 발굴된 김응문 일가 유골이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이정표 확인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문병학

네, 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암태도 소작쟁의투쟁, 1970년대 농민생존권투쟁과 민주화운동으로 유명한 농민운동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계시키는 기념관 건립 구상은 너무나 특색 있고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장님께서 뜻하시는 기념관 건립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추념식



2022년 10월 23일 강원도 풍암리 서석면 동학농민혁명공원 안에 있는 동학혁명군전적기념비 앞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추념식이 열렸다. 홍천문화원이 주최하고,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추념제는 추모식과 함께 추모음악회, 추모 연극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나기호 홍천군의회 의원, 홍천군민 등 100여 명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전라북도 부안군

2022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2022년 10월 28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부안군 주최,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학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은 개회사(배명영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대회사(임형진 동학학회장), 환영사(이정석 부안군 부군수), 격려사(이정희 전 천도교 교령)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채길순 명지대 교수의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현창」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제1부 조극훈(경기대)의 「해월 최시형과 부안의 동학」·조규태(한성대)의 「김낙철 형제의 동학과 부안 도소 활동」·박대길(전북대)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한 부안의 민족운동」 제2부 맹문재(안양대)의 「현대시에 반영된 부안 동학농민혁명 고찰」, 강민숙(시인)의 「부안 동학의 문화콘텐츠 방안연구」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전라북도 고창군

2022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2022년 10월 28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2022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고창군 주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북사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고창 동학농민군이 꿈꾼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개최식은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 노형수 고창 부군수의 축사가 있었다. 김양식 청주대 교수의 ‘전봉준의 민본사상과 정치의식’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백승중(서강대)의 ‘동학농민혁명이 손화중에게 ‘미래 가치’를 묻는다’,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속’, 배항섭(성균관대 교수)의 ‘동학농민군의 생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각각 발표되었다.

충청남도 태안군

제32회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



▣ 추모사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기념촬영_추모문화제 주요 내빈 및 공연팀

2022년 10월 29일 충남 태안군 백화산자락 ‘갑오 동학혁명군추모탑’ 앞에서 제32회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가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문영식), 태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용주) 공동주최로 열렸다. 추념식은 위령문 낭독, 기념사, 추모사, 유족인사, 헌시 낭송 등이 진행되었고, 문화공연은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의 한을 담은 ‘목네미 샴’이라는 창작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박경찬(태안군 부군수)를 비롯하여 참여자 후손과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태안군민 등이 참여하였다.

충청남도 공주시

제29회 2022 우금티 추모예술제



□ 문화공연-전통 춤 공연



□ 지게상여 행렬

2022년 10월 29일 충남 공주시 금학동 우금티전적지에서 제29회 2022 우금티 추모예술제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선원) 주최로 열렸다. '밥이 하늘이다'는 주제로 금강풍물패의 갈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 추모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은 정선원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원철 공주시장, 윤병구 공주시의회 의장, 박돈서 천도교 공주교구장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공연은 중학동합창단, 전통우리춤연구회, 민중가수 최도은의 공연이 펼쳐졌다. 추모공연이 끝난 후 공주소리보존회의 '지게상여놀이(행렬)'와 추모제례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경상남도 하동군

제128주년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위령식



2022년 11월 11일 경남 하동군 옥곡면 북방리에 자리한 동학혁명군위령탑에서 제128주년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위령식이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정의적) 주최,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회장 강호경) 주관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제1부 행사는 국민의례, 동학농민군 폐정개혁안 낭독, 만세삼창, 추념사, 추모가(追慕歌) 합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강연이 있었다.

전라북도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제128주년 기념행사**



2022년 11월 26일 삼례문화체육센터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8주년 기념행사가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 주최로 열렸다. 기념행사와 제례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128주년 삼례봉기 기념식에 이어 완주군민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등이 펼쳐졌다. 기념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김호서 전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윤수봉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임원, 완주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 전라도 삼례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92년 11월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이 펼쳐진 곳이다. 또한 1894년 9월 반일항전의 가치를 높이 올린 역사적인 고장이다. 나아가 1894년 12월 충청도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의 근대적 신무기에 열세로 인해 패배한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대둔산(완주군 비봉면)으로 숨어들어 1895년 2월까지 항전(抗戰)했던 곳이기도 하다.

경상남도 남해군
2022 남해 동학 학술보고회



2022년 11월 27일 남해 문화센터에서 2022 남해 동학 학술보고회 및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남해군이 주최하고,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한 이날 행사는 풍물패 길놀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길놀이에 이어진 개회식은 경과보고, 국민의례, 환영사 등으로 이어졌고, 남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학술보고회는 역사특강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역사특강은 성강현 책임연구원(동의대)이 맡았으며, 특강이 끝난 이후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역사특강과 토론이 끝난 후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 행사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박상종 천도교 교령,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 정영란 남해군의회 부의장, 정의적 경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심현호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남해군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국회 학술대회



□ 축사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2022년 11월 2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정문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학술대회는 지난 2021년 봄 천안에서 발굴된 「동경대전 계미중춘판」을 감정한 결과 진본으로, 국내 최고판본으로 판명된 것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동학(東學)의 경전인 「동경대전」 중 계미중춘판은 해월 최시형 선생의 지도하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동학 초창기 역사에 있어서 천안 목천 사람들의 긴장과 헌신」이라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생명사상으로서 동학과 새로운 미래」(박맹수, 원광대 총장), 「천안에서 「동경대전」 간행 의미」(성주현, 1923 체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용담유사」 계미중춘판의 간행과 역사적 의미」(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천안 동학농민혁명의 장소적 의의」(김양식, 청주대)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녹두꽃, 다시 피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박물관은 유아·어린이·가족(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모험단',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공감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크레용 유치원(2022.9.2.)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2022.9.15.)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군산, 미장하나 어린이집(2022.9.29.)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중앙 유치원(2022.10.13.)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또래 유치원(2022.10.21.)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태양 어린이집(2022.10.24.)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동화나라 어린이집 (2022.11.7.)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남초·교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2022.11.18.)



기념공원, 녹두 모험단
정읍, 동신초등학교(2022.11.22.)



박물관, 1894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대전, 태평초 (2022.10. 24.)

화약은?

진주화약
배경개혁안
집강소



전라관찰사 김학진



원평 집강소



박물관, 1894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서울, 신석초 (2022.10.21.)



박물관, 1894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대전, 가오초 (2022.10.26~11.24.)

퀴즈




박물관, 1894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천안, 성성초 (2022.11~12월,7회기)



박물관, 1894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인천, 송현초 (2022.11.7~11.11.)



박물관, 1894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전주, 삼천남초 (2022.11.14.)



보세요. 3 별명을 생각해 보세요.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전시실과 녹두학당을 활용하여 동학농민군 캐릭터 만들기, 입체퍼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기념시설물 활용 및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전주, 전주중학교 (2022.09.16.)



고창, 심원중학교 (2022.10.13.)



전주, 남중학교 (2022.10.21.)



익산, 이리영등중학교 (2022.10.22.)



완주, 완주고등학교 (2022.11.04.)



고창, 대성중학교(2022.11.09.)



■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다시 피는 녹두꽃'은 일반인(성인·가족)과 다문화 가정, 65세 이상 노인 및 유아, 전국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파랑새를 찾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꿈을 품은 박물관' 등으로 진행하였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시실 관람, 답사체험 및 답사신문 만들기, 공예체험, 동학농민혁명 퀴즈 및 퍼즐 풀기, 학예사가 되어보기 등으로 구성 및 운영 된다.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2022.09.24.~09.25.)



꿈을 품은 박물관 천안 아산, 은양한울중학교 (2022.10.13.)



꿈을 품은 박물관 광주, 문산중학교 (2022.10.21.)



파랑새를 찾아서 익산, 다문화가정 및 어린이 (2022.09.17.)



파랑새를 찾아서 부안,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2.09.23.)



■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유치부 및 초·중·등학교 역사교사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데 기여하고자 교육청과 연계하여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역량강화 역사답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12월 3~4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특강과 유적지 답사 등으로 각각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교원직무연수(2022.12.3.~12.4.)



■ 단체 방문객

한일방문단(2022.10.17.)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2022.10.19.)



익산 원광대학교 학군단(2022.10.25.)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조합원 교육(2022.10.25.)



전주국립박물관(2022.10.28.)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시 관계자(2022.11.07.)



익산 남성중(2022.11.17.)



문경 박약회(2022.11.23.)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9월 12일	한겨레신문	교과서도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
9월 13일	신아일보	'제1회 자작고개 전국 유튜브 동학농민혁명전사를 찾아라' 개최
9월 14일	중도일보	"동학농민혁명 그때처럼 논산에서 모두 모여보세!"
10월 5일	충청일보	논산동학농민혁명 예술제 열려
10월 5일	전민일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과 시대정신 학술대회' 성료
10월 5일	경향신문	'큰 나라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동학혁명 문화제 정읍서 열린다
10월 7일	오마이뉴스	광주 동학혁명공원서 만난, 혁명 참여 3형제의 사연
10월 11일	NEWS1	보은서 동학농민혁명 위상 재조명...오는 7~8일 행사
10월 18일	국제뉴스	원광대와 나주시, 일본동학농민혁명기행단과 화합의장 마련
10월 19일	한겨레신문	동학농민혁명으로 써야 한다
10월 19일	NEWS1	고창군, 동학혁명 지도자 손화중 관련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 추진
10월 20일	한겨레신문	"일본이 동학군에 저지른 일 알리려 17번째 답사 옵니다"
10월 24일	신아일보	홍천군, 제128주기 동학농민 추념행사 개최
10월 26일	광주드림	동학농민혁명기의 기록 재조명의 필요성
10월 26일	새전북신문	'광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열려
10월 27일	서울신문	부안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가치 알린다
10월 28일	새전북신문	전주성전투 이후 장흥으로 돌아온 동학농민군
10월 31일	데일리한국	공주시, 제29회 우금티 추모예술제 열어...'동학농민혁명의 뜻 기려'
10월 31일	중도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10월 31일	전남일보	동학군 최후 전투 이끈 이방언의 이야기
11월 1일	충청매일	2022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추모문화제 개최
11월 1일	새전북신문	제32회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 성료
11월 2일	한겨레신문	정읍 3·4일 동학농민혁명 추념제
11월 7일	YTN	정읍시,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으로 동학 정신 잇는다!
11월 7일	뉴시스	완주군의회, 지역 동학농민혁명 역사 재조명 앞장
11월 8일	한겨레신문	'판소리로 풀어내는 동학농민혁명사' 전주·서울·정읍 순회공연
11월 10일	뉴시스	하동군, 11일 고성산에서 동학혁명군 위령식 거행
11월 17일	스카이데일리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봉기 장소 국가문화재됐다
11월 22일	경북매일	포항 흥해서 동학 최초 조직 '접주제' 실행
11월27일	강원일보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정선 동학농민군 추모제 눈길
12월 5일	TJB	동학농민운동 중심인 천안에 기념도서관 건립해야
12월 5일	오마이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끌어
12월 6일	한겨레	체 게바라 조카 '녹두장군' 찾았다...동학농민혁명 국제 컨퍼런스
12월 6일	새전북신문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 제1회 세계 혁명 도시 연대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포함)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 접수·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0-9434~5)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참고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상설전시관 개관

Opening of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Museum

1894년 그날의 '혁명'을 다시 짓다
Again Build the Revolution of the Day in 1894

